

# 사순절 묵상집



## 뜻밖의 시간

나오미 맥컬러

마태복음 24:36-44

어렸을 때 저는 기다림의 개념은 커녕 시간의 흐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아직 안 왔어?", "5분만 더 가면 돼!"라는 뻔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는 언제쯤 일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저도 즉각적인 만족감, 즉 알고 있다는 편안함, 안전함, 불안과 기타 감정의 완화 같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피드백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니오"와 "아직은 아니오"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내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식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다가올 날, 즉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advent*라는 단어는 라틴어 어근 *Adventus*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유명하거나 중요한 사람의 도착을 나타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 주목할 만한 특별한 손님은 바로 인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재림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은 표적과 기사,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림에 대한 확신이나 윤곽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언제 다시 오셔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주님의 집이 가장 높은 산 위에 세워질까요? 열방이 언제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갈까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 묵상

알 수 없는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가올 일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참여할 때 더욱 적극적이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다리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막 날의 도래에 우리의 "대림절" 실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 기도

예상치 못한 시간의 주님, 주님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릴 때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깨어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아멘.

